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8년 8월

교육학석사(일반사회교육)학위논문

만성질환 학부모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김 정 훈

만성질환 학부모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arents with Chronic Disease i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2008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김 정 훈

만성질환 학부모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창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일반사회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8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김 정 훈

김정훈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2008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V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 방법 및 구성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학업성취도 격차의 개념	5
1. 학업성취도의 의미	
2. 학업성취도 격차 설명 이론	
제 2 절 학업성취도 격차의 학교 내적 요인	8
1. 학교 환경과 학업성취도	
2. 교사의 기대와 학업성취도	
제 3 절 학업성취도 격차의 학교 외적 요인	13
1. 지능과 학업성취도	
2.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도	
제 3 장 조사결과 및 분석	15
제 1 절 학생의 일반적 특성	15
1. 학업 성적	
2. 학업성적 귀인 성향	
제 2 절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18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2. 부모의 학력, 직업, 월수입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 관계	
3.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성취도	

제 3 절 부모의 만성 질환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24
1. 부모의 만성 질환	
2. 부모의 병원 이용 횟수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3. 부모의 만성 질환 유병기간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4. 부모의 만성 질환으로 인한 병원 방문 경험	
5. 학교 성적에 대한 만성 질환의 반영 기대	
6. 장래 진로 결정에 대한 만성 질환의 반영 기대	
제 4 절 부모의 만성 질환의 유무와 교사의 기대와의 관계	34
1. 교사의 기대의 일반적인 사항	
2. 만성 질환의 유무와 교사의 기대 하위 영역별 비교	
제 5 절 교사의 기대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42
1. 교사의 기대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2. 교사의 기대 하위 영역별 학업성취도 비교	
제 5 장 결론 및 제언	48
1. 결론	48
2. 제언	51
참고문헌	53
부록	55

표 목 차

<표 1-1> 중학교, 고등학교 1학기 학업성취도	15
<표 1-2> 중학교 학업성적 결정 요인	16
<표 1-3> 고등학교 학업성적 결정 요인	17
<표 2-1> 아버지의 학력	18
<표 2-2> 어머니 학력	19
<표 2-3> 아버지 직업	20
<표 2-4> 가정의 월 총수입	21
<표 2-5> 부모의 학력, 직업, 월수입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22
<표 2-6>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성취도	23
<표 3-1> 아버지 만성질환 유무	24
<표 3-2> 어머니 만성질환 유무	25
<표 3-3> 아버지의 만성질환 정도	26
<표 3-4> 어머니의 만성질환 정도	27
<표 3-5> 부모의 병원 이용 횟수	28
<표 3-6> 아버지의 유병기간 비교	29
<표 3-7> 어머니의 유병기간 비교	30
<표 3-8> 병원 방문 경험	31
<표 3-9> 성적에 대한 만성질환의 기대	32
<표 3-10> 진로 결정에 대한 만성 질환의 기대	33
<표 4-1> 차별대우 지각여부	34
<표 4-2> 차별대우의 기준	35
<표 4-3> 만성질환에 대한 교사의 지각여부	36
<표 4-4> 교사의 지원적 행동 기대	37
<표 4-5> 교사의 부정적 피드백과 지시적 행동 기대	38
<표 4-6> 교사의 학업 및 규칙 강조 행동 기대	39

<표 4-7> 교사의 긍정적 기대 및 관심적 행동	40
<표 4-8> 전체 교사의 기대	41
<표 5-1> 교사의 기대와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42
<표 5-2> 교사의 지원적 행동 기대에 따른 학업성취	43
<표 5-3> 교사의 부정적 피드백과 지시적 행동 기대에 따른 학업성취	44
<표 5-4> 교사의 학업 및 규칙 강조 행동 기대에 따른 학업성취	45
<표 5-5> 교사의 긍정적 기대 및 관심적 행동 기대에 따른 학업성취	46
<표 5-6> 전체 교사의 기대에 따른 학업성취	47

ABSTRACT

The Effect of Parents with Chronic Diseases i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Jung-hoon Kim

Advisor : Prof. Chang-Hun Lee Ph.D.

Major in General Scie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effect of parents with chronic diseases i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t is well known that there are differences of academic accomplishment among students. These differences stemmed not only from the individuals but also from the environment such as regions, schools, economical backgrounds of their parents. There are several researches which are about co-relations betwee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and their parents' social, economical status. However, there are rare researches about co-relations between student's academic accomplishments and parents with chronic diseases. Therefore, this research intended to examine how the parents with chronic diseases can affect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Procedure of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third graders of a senior high school in Gwangju. The duration was from April the 1st to April the 30th in 2007. The survey results was collected to figure out if parents with chronic diseases

would affect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the questionnaire which was asking about student's academic accomplishments, social-economic backgrounds,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and teacher's expectations. The subjects were required to write them down on the sheet or to be interviewed.

The major finding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from the outcome of the research, high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s was reflected by their parents' high level social and economic status. To add it more, it is turned out that parents with chronic disease affected th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meaningfully. In the case of that student's father has a chronic disease, 60 percent of the students showed low level accomplishments. Also, in the case of that students' mother has no chronic disease, 70 percent of the students showed high level accomplishments.

Second, low- level students in academic accomplishment whose parents have chronic disease regarded that there were considerable teacher's prejudice toward them while medium and high level students said there were meaningful prejudices.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that parents with chronic disease could affect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Especially mothers with chronic disease affected more than fathers. In addition to it, the teacher's expectations toward students were different upon student's backgrounds -whether parents have chronic disease or not- like other home background factors of the students. It implicates that teachers need to be aware of student's home background and environment including parents' health conditions. At the same time, they are needed to consider the ways to reduce the gap of the academic achievements between the student which might stem from the teacher's prejudice. Also, needed to give the positive

feedbacks for the students who have sick parents.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경험 중에 하나는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확실히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과거 고등학교 시절, 학교를 같이 다녀도 어떤 학생은 성적이 좋고 다른 학생은 그렇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러한 학업성취도의 격차는 개인 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 간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남녀 간에도 학업성취도의 격차가 나타나며, 학교 간, 도시·농촌의 지역 간, 부자와 빈자의 계층 간, 심지어 인종 간에도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바인 동시에, 여러 연구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업성취도의 문제는 학부모, 학생, 교사, 사회 모두에게 있어 민감한 문제이다. 학생은 물론하고, 학부모나 교사들은 자신들의 아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성적을 올리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망과 열정만으로 좋은 결과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머리만 좋다고 해서 학생 모두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다고 해서도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도 아니며, 교사의 격려와 지지만으로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학업성취를 달성하고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는 첫째, 학교 외적 요인으로 학생 자신과 관련된 요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있고 둘째, 학교 내적 요인으로 학교 내의 사회적 특성 등이 있다. 이러한 학교 외적·내적 요인의 여러 요인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 학생, 즉 학습자 요인은 개인적 특정 변수(지능/성격/인지능력/동기 등)와 같은 심리적 변인에 초점을 두어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이해하려 했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정으로 가정은 사람이 처음으로 접하는 인간관계의 장이며, 한 인간의 정의적 특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집단이다. 특히 부모의 영향은 자녀의 인성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대인관계의 기초

가 되며, 지적, 정의적 양 측면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학교 내 사회적 특성 중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사와의 관계이다.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은 그 학생의 지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교사의 학습기술 뿐 아니라 교사가 학생에 대해 어떻게 교육적 기대를 갖는가에 따라서 학업성취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¹⁾

따라서 본 연구는 학업성취도 격차의 중요 요인인 사회·경제적 배경 중에서 부모의 만성 질환 여부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객관적 지표로써 측정이 가능한 부모의 학력, 직업, 수입 등의 변인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만성 질환 여부를 가지고 첫째, 학부모의 만성 질환 여부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격차와, 둘째, 학생의 가정 환경 배경인 학부모의 만성 질환 여부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에 의식·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쳐 교사의 기대에 차이가 나게 하는지, 셋째, 학생들이 이러한 차별적 교사의 기대를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고, 교사의 기대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가정 환경 배경에 따라 각각 다르게 기대하고 대우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이 사회적 차별을 재생산해 내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기우 (1986)²⁾는 교사의 차별적 기대에 바탕이 되는 것은 학생의 가정적, 사회·경제적 배경이라고 했다. 이렇듯,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학생 본인의 학업 성취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있어서 교사의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긍정적·부정적 교사의 기대를 형성하며, 결국에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업성취도와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았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 중에 구체적으로 부모의 질병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 같다. 그러므로 이전의 선행 연구들의 확장된 범

1) 신혜숙, "차별적인 교사기대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2).

2) 황기우,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사의 기대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6).

위로써 기존 연구들에 부모의 질병에 대한 변수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서 부모의 만성 질환의 여부에 따른 학업성취도와 교사의 기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교실현장에서 학생의 귀속적 특징인 학부모의 만성 질환의 여부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이러한 학업성취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 모색하는데 있다. 둘째, 교사가 만성 질환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의 기대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실증적 자료로써 활용하는데 있다. 셋째, 학업성취도 격차의 많은 요인중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학생의 가정 배경에 중점을 두고 부모의 만성질환 여부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교사의 기대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교사의 기대는 학업성취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광주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 처리·분석하는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 및 구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학업성취의 개념, 학업성취 격차의 학교 내적·외적 요인 등을 문헌 조사하였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실증 분석을 위하여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회수된 설문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고등학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교사의 기대 수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고,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를 사용하였으며,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chi^2(p)$ 을 실시하였다.

넷째, 통계처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학업성취 격차의 개념

1. 학업성취의 의미

교육에서 학업성취의 문제는 교육자, 피교육자, 학부모와 주변의 관련자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학습자의 바람직하고 가치로운 변화이며 그것은 성공적인 학업성취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³⁾

학업성취수준은 앞 단계의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로 학습했는가를 나타내는 평가 자료인 동시에 다음 단계의 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는 학습기초를 갖추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예측자료이기도 하다. 학업성취에는 지적 영역의 학습결과만이 아니라 비지적 영역을 학습결과도 포함된다.⁴⁾

학업성취도 격차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로는 교육 격차, 교육 불균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 격차의 문제는 교육 불균등이나 학업성취도(학력) 격차의 문제와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교육 격차와 교육 불균등은 같은 문제 의식에 출발하지만 그 강조하는 주안점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교육 불평등은 주로 교육에 대한 이념적, 사상적, 나아가 상징적 관점을 강조하는데 비해, 교육 격차는 현상적, 실제적, 가시적 측면에서 보다 교육의 불균등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접근 가능한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교육 격차는 사회 및 학교의 사회구조적 측면과 어울려 그 기능면에서 교육의 과정과 결과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교육 격차에 관련된 연구와 논의의 핵심은 교육의 결과인 학업성취의 격차로 모아진다.

많은 연구자들이 학생들이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요인과 개인 간이나 집단 간에 학업성취의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 등에 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과거에는 학업성취

3) 성기형, “학업성취 변인에 관한 요인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

4) 김신일, 『교육사회학』 (서울 : 교육과학사, 2004), pp. 335~336.

의 문제를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나 지능 등의 개인적 측면에서 주로 관점을 두었으나 요즘에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학교 환경의 차이 등 사회적 측면에 더 집중하고 있다.⁵⁾

2. 학업성취의 격차 설명 이론

학업성취의 결정적인 요인을 개인의 속성에 두는 관점과 사회적 구조에 두는 관점으로 구별해볼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할 경우, 개인 속성 결정론적 관점에는 유전적 지능론과 문화 실조론이 해당되며, 사회 구조 결정론적 관점을 취하는 이론으로 교육 기회론과 문화적 폭력론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구별은 생득적 조건이 절대적임을 주장하는 입장과 사회적 규정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생득적 조건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이론으로는 유전적 지능론과 교육 기회론을 들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회적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는 문화 실조론과 문화적 폭력론을 배열할 수 있다.

유전적 지능론은 학업 성취의 격차가 개인의 생득적 속성인 지능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생후적 조치로 학업성취의 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설명한다. 교육 기회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에 초래된 교육기회의 불균등이 학업성취의 격차를 발생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기회의 불균등이 사회구조에 원인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 구조를 바꾸려는 의도는 갖고 있지 않다. 교육 기회론에 근거하여 제시되는 학업성취 격차 해소 정책은 결국 보상 교육 정책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문화 실조론은 학생들의 교육 성취에서 실패하는 이유로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가정 환경을 지적한다. 문화 실조론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문화 실조 아동은 가정의 빈약한 문화적 자극 때문에 학교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지적 소양을 갖추기 못한 채 취학하며 학습 장면에서 교수 내용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한다. 이들은 문화 실조 아동들에게 부족한 지적 자극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상 교육을 방

5) 임용순 외, 『강원도 도시와 읍·면 지역간의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분석 및 해소방안 연구』 (강원도 : 강원도 교육청 위탁연구보고서, 2004).

안으로 제시한다.

문화적 폭력론은 한 사회에서 표방된 문화는 모든 집단의 합의를 거친 문화가 아님을 먼저 확인시킨다. 문화적 폭력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은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문화만을 그 사회에서 정통성을 갖는 문화라고 표방하고 이 문화를 근원으로 하여 지식을 선정하고 조직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지식에서 교과 과정과 교사-학생 상호 작용 유형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배집단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업성취에 성공하고 피지배집단 자녀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불공평한 교과 과정과 편파적인 상호교섭 유형 때문이며, 이는 두 팀 사이에 불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기에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업성취 격차를 설명하는 갖가지 이론 들은 나름대로 논리와 강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어느 한 가지 이론도 학업성취 격차의 발생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⁶⁾

6) 오욱환, 『교육사회학의 이해와 탐구』 (서울 : 교육과학사, 2003), pp.188~189.

제 2 절 학업성취 격차의 학교 내적 요인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학교 내의 환경은 많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학교 내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학업성취가 결정되어진다고 보고 하였고,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학교 효과를 부정할 만큼 학교 내의 요인들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 학업성취는 학교 내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보다는 학교 외적 요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능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 내의 한 요인에 의해서 학업성취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둘러싼 여러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학업성취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1. 학교 환경과 학업성취도

우수한 환경에서 학습하는 학생들과 나쁜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 사이에 학업성취 격차가 나타날 것임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학교 간의 물질적 조건의 격차는 쉽게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직결된다. 우수한 조건을 갖춘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열악한 환경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같은 조건의 교육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 격차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격차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Coleman 연구팀은 실증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학교의 물질적 조건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무관하다”는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상식을 뒤집어 버렸다. 이 연구팀은, 다른 모든 조건들을 동일하게 통제된 후, 물질적 조건만이 학업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학생들 간 학업성취 격차는 학교 시설, 기구, 도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물질적 조건 이외의 모든 조건을 통제했을 경우, 좋은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의 학력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밝혔을 뿐이다.⁷⁾

7) 오욱환, 전게서, pp. 210~211.

또한 학급 당 학생수를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사가 적은 수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교육 효과의 상승 당연히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로는 상식처럼 학생 수가 적을수록 학업성취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다. 학급 규모가 작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급 규모가 큰 것이 학업성취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으며, 그런가 하면 학급규모와 학업성취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⁸⁾

Simon (1975)⁹⁾는 학급 규모, 교사의 교육 수준,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교육환경에 관한 요인들은 성적과 이렇다 할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학교의 교육 환경 요인들은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성적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부모의 행동 특성, 학생의 영양 상태, 성격 등은 생각보다 오히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학교 내의 교육 환경보다 학교 밖으로부터 학생이 가지고 오는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¹⁰⁾

그리고 모든 학교는 각자 독특한 학습 풍토(learning climate)를 갖고 있다. 어떤 학교의 학습 풍토는 학생의 학업성취를 촉진시키지만, 반대로 어떤 학습 풍토는 학업성취를 저해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효과적인 학습 풍토를 가진 학교는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가져오고, 비효과적인 풍토를 가진 학교는 낮은 학업성취를 초래한다.¹¹⁾ 학교 풍토¹²⁾를 연구한 Brookover는 학생의 풍토 지수가 학업성취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하지만 학생 문화를 연구한 McDill (1967)¹³⁾은 학생 문화는 성적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리 큰 것은 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태도점수와 수학성적 사이에 극히 낮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학생들이 지능지수, 사회경제적 지위, 소망수준이 학생문화보다 성적에 훨씬 큰 영향을 주는 사

8) 김신일, 전계서, p. 346.

9) J. Simon, *How Effective is Schooling for Promoting Learning*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1975).

10) 김신일, 전계서, p.352.

11) 이종각, 『새로운 교육사회학총론』 (서울 : 동문사, 2004), pp. 244~345.

12) 김병성, 『학교효과론』 (서울 : 학지사, 2001), p.91~92. 학교풍토는 구성원들에 의해 지각되어 학교체제를 특정 짓는 규범, 기대, 신념의 총합체로 규정하고 있다.

13) E. McDill. et al, "Institutional Effects on the Academic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Sociology of Education, 40, 1967), pp. 181~199.

실을 확인하였다.¹⁴⁾

2. 교사의 기대와 학업성취도

교사의 기대와 학업성취도와 관계를 이해할 때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로젠탈 효과, 자성적 예언,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도 하는 피그말리온 효과이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이름에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로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하고, 그 여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 여신(女神) 아프로디테(로마신화의 비너스)는 그의 사랑에 감동하여 여인상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말한다.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변하려고 노력하여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심리학에서는 교사의 관심이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1968년 하버드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Robert Rosenthal)과 미국에서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레노어 제이콥슨(Lenore Jacobson)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일개의 초등학교에서 모든학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한 후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일개 반에서 20% 정도의 학생을 뽑았고, 그 학생들의 명단을 교사에게 전달하면서 '지적 능력이나 학업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 다음 8개월 후 전과 같은 지능검사를 다시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명단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고, 그 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다. 명단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으며, 이 연구 조사결과는 교사가 학생에게 거는 기대가 실제로 학생의 성적 향상에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계기였다.

Rosenthal and Jacobson (1968)¹⁵⁾에서 교사의 기대는 학생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예언

14) 김신일, 전개서, p.365.

자임을 알려 주고 있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이 학업성취를 올리리라는 교사의 기대는 실제로 학업성취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기대 영향은 저학년과 하류 계층 학생에게 더 뚜렷하였다.

Bloom(1976)¹⁶⁾의 완전학습¹⁷⁾에서 교사들은 자기가 맡은 학생들의 1/3정도가 충분히 학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나머지 1/3정도의 학생은 실패하거나 가까스로 모면할 것으로 기대하고, 나머지 1/3은 학습을 하기는 하나 우수한 학생이 도리 정도는 아니라고 기대한다. 이와 같은 제한된 교사의 기대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어 실제 학업성취에도 같은 분포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¹⁸⁾

Brookover 등 (1973)¹⁹⁾은 교사, 부모, 학우등과 같은 타인들이 자신의 학업에 대하여 실패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은 거의 높은 능력 자아 개념을 갖지 못하며, 미래 교육 원망 수준도 낮아 실패율이 증가한다고 하였다.²⁰⁾

교사가 지각하는 학생 배경이나 능력에 대한 기대 차이는 교사의 수업 행동에서 차이를 가져오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러한 교사의 차등적인 태도는 학생에게 전달되어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최초의 기대는 실현되어 학생의 학업성취의 격차현상은 계속적으로 유지 강화되어진다는 것이다.²¹⁾

그러나 Fiedler, Chen and Feeney(1971)²²⁾ Fleming and Anttonen(1971)²³⁾등은 교사

15) R Rosenthal and L Jacobson, *op. cit.*

16) M S. Bloom,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New York:Mcgraw-Hill, 1976).

17) 완전학습이란 학급 95%이상의 학생들이 주어진 학습과제의 90%이상을 완전히 학습했을 때를 말한다.

18) 김희영, "교사의 성취기대에 대한 학생의 지각과 학업성취와의 상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19) W B. Brookover, *Final Report of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1 E 107, 1973).

20) 백영배, "자기 충족적 예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21) 이상숙, "교사의 행동에 대한 학생의 차별적 지각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8).

22) Q Fiedler, R Cohen, and S Feeney, "An attempt to replicate the teacher expectancy effects" (Psychological Reports, 29, 1971)pp.1223-1228.

23) E. S Fleming and R. G Anttonen, "Teacher expectancy or my fair lady" (AERA Journal,8,241, 1971).

의 기대 효과를 부정하는 결과물을 제시하였는데 Brophy는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기대와 학생이 지각하는 기대 정도가 일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권락원(1972)²⁴⁾이 이점을 고려하여 학생이 지각한 교사 부모의 기대 정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에서 학생이 실제로 지각하는 교사의 기대 정도와 학업성취와는 상관이 있음을 검증한 바 있다. 한대동²⁵⁾은 학교 풍토 요인 중에서 학생이 지각한 학생능력에 대한 평가 기대만이 학업성취와 유의 있는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24) 권락원, "학생이 지각한 부모 및 교사의 성취기대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2).

25) 한대동,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풍토 지각 경향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1).

제 3 절 학업성취 격차의 학교 외적 요인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외적 요인으로는 학습자 개인의 특성인 지능, 성격, 인지, 양식, 귀인, 동기 등과 같은 변인과 학습자의 귀속적 특성인 사회·경제적 배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교육적 조치로 학업성취 격차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학자들은 학업성취의 실패 이유를 이러한 요인들에서 찾게 된다.

1. 지능과 학업성취도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지능 지수와 학업 성취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능의 높낮이가 사회 계층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능 지수와 학업성취의 높은 상관관계 중 얼마만큼이 순수한 지능의 결과이고, 얼마만큼이 환경의 영향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Duncan은 지능이 학교 교육 연한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연한은 직업적 지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한 개인의 지능은 그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학교 교육 연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²⁶⁾

1960년대 이후 많은 학자들이 지능 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공통적인 비판은 이 검사가 문화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다. 첫째, 지능 검사는 하류 계층과 소수 민족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이 갖고 있지 않는 지식과 어휘를 매개로 하여 측정한다. 중·상류 계층과 다수 민족, 곧 백인이 사용하는 지식과 어휘를 매개로 할 경우, 하류 계층과 소수 민족은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

26) O. D. Duncan, D. Featherman, and B. Duncan,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achievement* (New York : Academic press, 1972).

으로 거부당할 수 있다.

전통적 지능 개념과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교육의 가능성은 극히 제한된다. 교육자나 교육학자들은 유전론이나 전통적 지능이론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만, 상식 수준에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으며 일상적 교육 장면에서는 묵시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교육의 모든 개인들로 하여금 의미 있는 주체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과업이 될 수 있다.

2.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육의 기회 분배에 차이가 있으며, 학교 교육을 통한 학습 결과도 차이가 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었고,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 통용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석태중²⁷⁾에 따르면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연구 결과, 상류 계급과 하류 계급 간에 무려 18.6 점이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사회 계층 간 격차를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학생의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으며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무단결석, 혼욕문제, 정학 또는 퇴학 등이 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사회계층이 높은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들은 포부와 욕망도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여 준다. 따라서 높은 포부나 욕망 역시 가정 배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가 어느 계층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대체적인 경향은 학교가 중류층에 기준을 두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과정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중류층에 속하여 각종 검사 도구들도 중류층의 문화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하류층 아이들은 학습 활동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교사와는 다르며 학업성취에 필요한 학습 방법도 미숙하게 되므로 하류층 학생의 학업성취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7) 석태중,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금육학술문화재단 연구보고서, 1981).

제 3 장 조사결과 및 분석

제1 절 학생의 일반적 특성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의 만성 질환 유무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서 2007년 4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광주광역시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200명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 바, 인문계 고등학교의 입학성적, 귀인성향, 계열선택이유, 진학여부는 다음과 같다.

1. 학업 성적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성적과 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살펴 보았다.

<표 1-1> 중학교, 고등학교 1학기 학업성취도

구분	학업성취도	N	%
중학교 3학년 성적	상위권	45	22.5
	중위권	119	59.5
	하위권	39	18
마지막 학기 성적	상위권	39	19.5
	중위권	124	62
	하위권	37	18.5

2. 학업성적 귀인성향

(1) 학업성적 결정 요인과 사회경제적 지위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학업성적의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나의 노력이 75.5%로 높게 나타났다. 상위권과 중위권은 나의 노력이 각각 77.3%, 78.8%로 하위권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하위권은 운이 18.4%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2> 중학교 학업성적 결정 요인

		나의노력	나의 능력	가정환경	교사의 영향	운	전체	x ² (p)
학업 성취도	상위권	34	4	3	2	1	44	
		77.3%	9.1%	6.8%	4.5%	2.3%	100.0%	
	중위권	93	8	6	5	6	118	
		78.8%	6.8%	5.1%	4.2%	5.1%	100.0%	
	하위권	24	2	3	2	7	38	
		63.2%	5.3%	7.9%	5.3%	18.4%	100.0%	
전체		151	14	12	9	14	200	
		75.5%	7.0%	6.0%	4.5%	7.0%	100.0%	

p<0.05

(2) 고등학교 학업성적 결정 요인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학업성적의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나의 노력이 75.5%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학업성적결정요인으로 상위권과 중위권은 나의 노력이 각각 76.9%, 79.0%로 하위권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하위권은 운이 16.2%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는 학업성적결정요인으로 중은 나의 노력이 77.8%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3> 고등학교 학업성적 결정 요인

		나의노력	나의 능력	가정환경	교사의 영향	운	전체	x ² (p)
학업 성취도	상위권	30	2	3	2	2	39	
		76.9%	5.1%	7.7%	5.1%	5.1%	100.0%	
	중위권	98	9	4	5	8	124	
		79.0%	7.3%	3.2%	4.0%	6.5%	100.0%	
	하위권	23	4	2	2	6	37	
		62.2%	10.8%	5.4%	5.4%	16.2%	100.0%	
사회 경제적 지위	상	33	3	3	2	3	44	9.008 (.342)
		75.1%	6.8%	6.8%	4.5%	6.8%	100.0%	
	중	105	11	5	6	8	135	
		77.8%	8.2%	3.7%	4.4%	5.9%	100.0%	
	하	13	1	1	1	5	21	
		61.8%	4.8%	4.8%	4.8%	23.8%	100.0%	
전체	151	15	9	9	16	200		
	75.5%	7.5%	4.5%	4.5%	8.0%	100.0%		

p<0.05

제 2 절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1) 아버지 학력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학력에 대해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하위권은 대학교 졸업이상이 29.7%, 중위권은 41.1%, 상위권은 53.8%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는 하는 아버지의 대학교 졸업이상이 4.8%, 중은 31.2%, 상은 90.9%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게 나왔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표 2-1> 아버지의 학력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업 이상	전체	$\chi^2(p)$
학업 성취 도	상위권	0	1	15	2	16	5	39	7.233 (.703)
		.0%	2.6%	38.5%	5.1%	41.0%	12.8%	100.0%	
	중위권	2	8	60	3	42	9	124	
		1.6%	6.5%	48.4%	2.4%	33.9%	7.2%	100.0%	
	하위권	1	3	21	1	9	2	37	
		2.7%	8.1%	56.8%	2.7%	24.3%	5.4%	100.0%	
사회 경제 적 지위	상	0	0	3	1	29	11	44	102.45 (.000)
		.0%	.0%	6.8%	2.3%	65.9%	25%	100.0%	
	중	1	5	82	5	37	5	135	
		0.7%	3.7%	60.7%	3.7%	27.5%	3.7%	100.0%	
	하	2	7	11	0	1	0	21	
		9.5%	33.3%	52.4%	.0%	4.8%	.0%	100.0%	
전체		3	12	96	6	67	16	200	
		1.5%	6%	48%	3%	33.5%	8%	100.0%	

(2) 어머니 학력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학력에 대해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하위권은 대학교 졸업이상이 13.5%, 중위권은 25.8%, 상위권은 29.2%이었고, 대학원 졸업 이상은 상위권이 2.6%, 중위권이 2.4%, 하위권은 0%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게 나타났다.

<표 2-2> 어머니 학력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업 이상	전체	$\chi^2(p)$
학업 성취도	상위권	0	2	24	2	10	1	39	6.951 (.730)
		.0%	5.1%	61.6%	5.1%	25.6%	2.6%	100.0%	
	중위권	2	5	82	3	29	3	124	
		1.6%	4.0%	66.2%	2.4%	23.4%	2.4%	100.0%	
	하위권	1	3	25	3	5	0	37	
		2.7%	8.1%	67.6%	8.1%	13.5%	.0%	100.0%	
전체	3	10	131	8	44	4	200		
	1.5%	5%	65.5%	4%	22%	2%	100.0%		

p<0.05

(3) 아버지 직업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하위권은 상·하위전문직이 37.8%, 중위권은 상·하위전문직이 37.0%, 상위권은 상위전문직이 43.6%로 학업성취도가 상위권에서 상·하위전문직의 비율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는 하에서 상·하위전문직은 0.0%, 중에서 상·하위전문직은 37.0%, 상에서 상·하위전문직이 61.4%로 상일수록 상·하위전문직의 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표 2-3> 아버지 직업

		단순노무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자영 기능인	자영상인 및 자영서비스업	상·하위 전문직	전체	$\chi^2(p)$
학업 성취 도	상위권	2	3	5	12	17	39	4.384 (.928)
		5.1%	7.7%	12.8%	30.8%	43.6%	100.0%	
	중위권	8	9	16	45	46	124	
		6.5%	7.3%	12.9%	36.3%	37.0%	100.0%	
	하위권	4	3	2	14	14	37	
		10.8%	8.1%	5.4%	37.8%	37.8%	100.0%	
사회 경제 적 지위	상	0	1	3	13	27	44	96.172 (.000)
		.0%	2.3%	6.8%	29.5%	61.4%	100.0%	
	중	5	7	17	56	50	135	
		3.7%	5.2%	12.6%	41.5%	37.0%	100.0%	
	하	9	7	3	2	0	21	
		42.9%	33.3%	14.3%	9.5%	.0%	100.0%	
전체	14	15	23	71	77	200		
	7%	7.5%	11.5%	35.5%	38.5%	100.0%		

$p<0.05$

(4) 가정의 월 총수입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의 월 총수입에 대해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가정의 월 총수입이 301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하위권은 35.1%, 중위권은 37.2%, 상위권은 51.2%로 상위권일수록 가정의 월 총수입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는 가정의 월 총수입이 301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하는 0.0%이고, 중은 33.3%, 중은 34.2%, 상은 77.3%로 상일수록 가정의 월 총수입 301만원 이상 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표 2-4> 가정의 월 총수입

		100만 원 이하	101만원- 200만원	201만원- 300만원	301만원- 400만원	401만원- 500만원	501만 원 이상	전체	$\chi^2(p)$
학업 성취도	상위권	2	7	10	7	8	5	39	6.595 (.763)
		5.1%	17.9%	25.6%	17.9%	20.5%	12.8%	100.0%	
	중위권	7	25	46	25	11	10	124	
		5.6%	20.2%	37.1%	20.2%	8.9%	8.1%	100.0%	
	하위권	2	9	13	6	3	4	37	
		5.4%	24.4%	35.1%	16.2%	8.1%	10.8%	100.0%	
사회 경제적 지위	상	0	1	9	8	12	14	44	113.219 (.000)
		.0%	2.3%	20.4%	18.2%	27.3%	31.8%	100.0%	
	중	3	31	56	30	10	5	135	
		2.2%	23.0%	41.5%	22.2%	7.4%	3.7%	100.0%	
	하	8	9	4	0	0	0	21	
		38.1%	42.9%	19.0%	.0%	.0%	.0%	100.0%	
전체	11	41	69	38	22	19	200		
	5.5%	20.5%	34.5%	19%	11%	9.5%	100.0%		

$p < 0.05$

2. 부모의 학력, 직업, 월수입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학력, 직업, 월수입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아버지 학력과 학업성취도와는 $r=.216(p<.01)$ 의 정비례의 관계를 보였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학력, 직업, 수입 등의 요인들 중에 학력이 학업성취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부모의 학력, 직업, 월수입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아버지학력	어머니학력	아버지직업	어머니직업	월수입	학업성취도
아버지학력	1					
어머니학력	.569(**)	1				
아버지직업	.219(**)	.243(**)	1			
어머니직업	.124	.221(**)	.025	1		
월수입	.334(**)	.361(**)	.323(**)	.089	1	
학업성취도	.216(**)	.112	.049	.109	.076	1

**p<.01

3.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성취도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상위권이 더 높게 나타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인 경우가 학업성취도 상위권이 31.9%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학업성취도 하위권이 더 높게 나타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인 경우가 학업성취도 하위권이 42.8%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나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p < 0.05$)

<표 2-6>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성취도

구분		학업성취도			전체	$\chi^2(p)$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사회 경제적 지위	상	14	24	6	44	13.871 (.008)
		31.9%	54.5%	13.6%	100.0%	
	중	23	90	22	135	
		17.0%	66.7%	16.3%	100.0%	
	하	2	10	9	21	
		9.5%	47.6%	42.8%	100.0%	
전체		39	124	37	200	
		19.5%	62%	18.5%	100.0%	

$p < 0.05$

제 3 절 부모의 만성질환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1. 부모의 만성질환

(1) 아버지의 만성질환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서 학업성취도 하위권이 62.2%로 유의하게 높았고,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도 하가 71.4%로 유의하게 높았다.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학업성취도의 상위권과 중위권이 비슷하게 높았으며,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도 상이 68.2%, 중이 57.0%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표 3-1> 아버지 만성질환 유무

		만성질환 있는 경우	만성질환 없는 경우	전체	$\chi^2(p)$
학업 성취도	상위권	15	24	39	6.447 (.040)
		38.5%	61.5%	100.0%	
	중위권	49	75	124	
		39.5%	60.5%	100.0%	
	하위권	23	14	37	
		62.2%	37.8%	100.0%	
사회 경제적 지위	상	14	30	44	9.124 (.010)
		31.8%	68.2%	100.0%	
	중	58	77	135	
		43.0%	57.0%	100.0%	
	하	15	6	21	
		71.4%	28.6%	100.0%	
전체		87	113	200	
		43.5%	56.5%	100.0%	

p<0.05

(2) 어머니의 만성질환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학업성취도 상위권이 71.8%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도 상이 84.1%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3-2> 어머니 만성질환 유무

		만성질환 있는 경우	만성질환 없는 경우	전체	$\chi^2(p)$
학업 성취도	상위권	11	28	39	20.203 (.000)
		28.2%	71.8%	100.0%	
	중위권	56	68	124	
		45.2%	54.8%	100.0%	
	하위권	29	8	37	
		78.4%	21.6%	100.0%	
사회 경제적 지위	상	7	37	44	28.828 (.000)
		15.9%	84.1%	100.0%	
	중	72	63	135	
		53.3%	46.7%	100.0%	
	하	17	4	21	
		81.0%	19.0%	100.0%	
전체		96	104	200	
		48%	52%	100.0%	

p<0.05

(3) 아버지의 만성질환 정도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관계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만성질환 정도에 따라서는 1가지인 경우가 상, 중, 하에서 모두 93.3%, 83.7%, 78.3%로 높았고, 3가지 이상인 경우는 하위권에서 4.3%로 다른 집단에서보다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표 3-3> 아버지의 만성질환 정도

		1가지	2가지	3가지 이상	전체	$\chi^2(p)$
학업 성취도	상위권	14	1	0	15	1.802 (.772)
		93.3%	6.7%	.0%	100.0%	
	중위권	41	7	1	49	
		83.7%	14.3%	2.0%	100.0%	
	하위권	18	4	1	23	
		78.3%	17.4%	4.3%	100.0%	
전체		73	12	2	87	
		83.9%	13.8%	2.3%	100.0%	

p<0.05

(4) 어머니의 만성질환 정도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관계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만성질환 정도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질환이 1가지인 경우는 상위권 81.8%, 중위권 67.9%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많았고,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학업성취도 하위권에서 13.8%로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3-4> 어머니의 만성질환 정도

		1가지	2가지	3가지 이상	전체	$\chi^2(p)$
학업 성취도	상위권	9	2	0	11	6.925 (.140)
		81.8%	18.2%	.0%	100.0%	
	중위권	38	16	2	56	
		67.9%	21.4%	3.6%	100.0%	
	하위권	14	11	4	29	
		48.3%	37.9%	13.8%	100.0%	
전체		61	29	6	96	
		63.5%	30.2%	6.3%	100.0%	

p<0.05

2. 부모의 병원 이용 횟수와 학업성취도와 관계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성질환을 가진 부모의 병원 이용 횟수에 따른 학업성취도 비교에서 상위권에서는 1개월에 1회 방문이 70.6%로 높았고, 하위권에서는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1주 1회가 37.5%로 높았다.

<표 3-5> 부모의 병원 이용 횟수

		1주 1회	2주 1회	3주 1회	1개월 1회	전체	$\chi^2(p)$
학업 성취도	상위권	1	3	1	12	17	10.439 (.107)
		5.9%	17.6%	5.9%	70.6%	100.0%	
	중위권	7	9	14	33	63	
		11.1%	14.3%	22.2%	52.4%	100.0%	
	하위권	12	2	2	16	32	
		37.5%	6.25%	6.25%	50.0%	100.0%	
전체		20	14	17	61	112	
		17.9%	12.5%	15.2%	54.4%	100.0%	

p<0.05

3. 부모의 만성질환 유병기간과 학업성취도와 관계

(1) 아버지의 유병기간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유병기간에 따른 학업성취도 비교에서 초등학교 이전과 초등학교부터 발생한 경우 학업성취도 하위권에서 모두 78.2%로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표 3-6> 아버지의 유병기간 비교

		초등학교이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x ² (p)
학업 성취도	상위권	3	5	6	1	15	11.107 (.085)
		20.0%	33.3%	40.0%	6.7%	100.0%	
	중위권	8	11	24	6	49	
		16.3%	22.4%	48.9%	12.4%	100.0%	
	하위권	9	9	5	0	23	
		39.1%	39.1%	21.8%	.0%	100.0%	
전체		20	25	35	7	87	
		23.0%	28.7%	40.2%	8.1%	100.0%	

p<0.05

(2) 어머니의 유병기간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만성질환 유병기간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비교에서 초등학교이전과 초등학교 때 발생한 경우가 하위권에서 모두 37.9%로 높았고, 특히 초등학교 이전에 발생한 경우는 하위권에서 20.7%로 통계적으로 유의있게 높았다. (p<0.05)

<표 3-7> 어머니의 유병기간 비교

		초등학교이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chi^2(p)$
학업 성취도	상위권	1	4	6	0	11	44.232 (.000)
		9.1%	36.4%	54.5%	.0%	100.0%	
	중위권	5	11	28	12	56	
		8.9%	19.6%	50.0%	21.5%	100.0%	
	하위권	6	5	15	3	29	
		20.7%	17.2%	51.7%	10.4%	100.0%	
전체		12	20	49	15	96	
		12.5%	20.8%	51.1%	15.6%	100.0%	

p<0.05

4. 부모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병원 방문 경험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만성질환으로 고등학생이 병원을 방문한 경험과 학업성취도의 비교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하위권에서 21.9%로 타 집단보다 높았다.

<표 3-8> 병원 방문 경험

		경험 있다	경험 없다	전체	$\chi^2(p)$
학업 성취도	상위권	1	16	17	1.119 (.290)
		5.9%	94.1%	100.0%	
	중위권	10	53	63	
		15.9%	84.1%	100.0%	
	하위권	7	25	32	
		21.9%	78.1%	100.0%	
전체		18	94	112	
		16.1%	83.9%	100.0%	

p<0.05

5. 학교 성적에 대한 만성 질환의 반영 기대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만성질환이 고등학생의 성적에 미치는 기대에 대한 결과에서 학업 성취도 상위권에서는 전혀 아니다가 58.8%로 높았고,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는 하위권에서 34.4%로 타 집단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3-9> 성적에 대한 만성질환의 기대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chi^2(p)$
학업 성취도	상위권	10	4	2	1	0	17	22.908 (.003)
		58.8%	23.5%	11.8%	5.9%	.0%	100.0%	
	중위권	14	18	20	9	2	63	
		22.2%	28.6%	31.7%	14.3%	3.2%	100.0%	
	하위권	3	4	14	8	3	32	
		9.4%	12.5%	43.7%	25.0%	9.4%	100.0%	
전체		27	26	36	18	5	112	
		24.1%	23.2%	32.1%	16.1%	4.5%	100.0%	

p<0.05

6. 장래 진로 결정에 대한 만성 질환의 반영 기대

<표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생 진로 결정에 대한 만성질환의 기대에서 대체로 만성질환이 장래 진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6%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하위권일수록 그렇다는 답변이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표 3-10> 진로 결정에 대한 만성 질환의 기대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chi^2(p)$
학업 성취도	상위권	6 35.3%	11 64.7%	0 .0%	0 .0%	0 .0%	17 100.0%	18.143 (.020)
	중위권	16 25.4%	23 36.5%	19 30.2%	4 6.3%	1 1.6%	63 100.0%	
	하위권	6 18.8%	7 21.8%	13 40.6%	4 12.5%	2 6.3%	32 100.0%	
		28 25.0%	41 36.6%	32 28.6%	8 7.1%	3 2.7%	112 100.0%	

p<0.05

제 4 절 부모의 만성질환의 유무와 교사의 기대와의 관계

1. 교사의 기대의 일반적인 사항

(1) 차별대우 지각 여부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의 차별대우 지각여부에서 상위권과 중위권은 대체로 그렇다가 43.6%, 34.7%로 높았고, 하위권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37.7%로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교사의 차별대우 지각여부는 만성질환이 있을 때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36.6%로 높게 나타났다.($p<0.05$)

<표 4-1> 차별대우 지각여부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chi^2(p)$
학업 성취도	상위권	1 2.6%	2 5.1%	13 33.3%	17 43.6%	6 15.4%	39 100.0%	8.020 (.432)
	중위권	3 2.4%	9 7.3%	38 30.6%	43 34.7%	31 25.0%	124 100.0%	
	하위권	0 .0%	4 10.8%	7 18.9%	12 32.5%	14 37.8%	37 100.0%	
부모의 만성질환	있다	2 1.8%	4 3.6%	23 20.5%	42 37.5%	41 36.6%	112 100.0%	24.059 (.000)
	없다	2 2.3%	11 12.5%	35 39.8%	30 34.1%	10 11.3%	88 100.0%	
전체		4 2.0%	15 7.5%	58 29.0%	72 36.0%	51 25.5%	200 100.0%	

$p<0.05$

(2) 차별대우의 기준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생의 차별대우 기준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교사가 차별대우를 할 때 기준으로 학업성적이 55%로 가장 많았고,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상위권에서 생활태도가 46.3%로, 중,하위권에서는 학업성적이 각각 57.3%, 62.2%로 많았다. 부모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가정환경이 8.9%로, 없는 경우 학급의 임원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2> 차별대우의 기준

		학업성적	가정환경	지능	외모	생활태도	학급의 임원	전체	$\chi^2(p)$
학업 성취도	상위권	16	2	0	1	18	2	39	8.458 (.584)
		41.0%	5.1%	.0%	2.6%	46.2%	5.1%	100.0%	
	중위권	71	8	1	4	36	4	124	
		57.3%	6.5%	0.8%	3.2%	29.0%	3.2%	100.0%	
	하위권	23	2	1	2	8	1	37	
		62.2%	5.4%	2.7%	5.4%	21.6%	2.7%	100.0%	
부모의 만성 질환	유	68	10	1	4	27	2	112	11.221 (.047)
		60.7%	8.9%	0.9%	3.6%	24.1%	1.8%	100.0%	
	무	42	2	1	3	35	5	88	
		47.7%	2.3%	1.1%	3.4%	39.8%	5.7%	100.0%	
전체		110	12	2	7	62	7	200	
		55.0%	6.0%	1.0%	3.5%	31.0%	3.5%	100.0%	

p<0.05

(3) 교사의 만성질환에 대한 지각 여부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의 만성질환에 대한 지각 여부는 학업성취도가 상위권에서는 전혀 모른다가 52.9%로 많았고, 중,하위권은 조금알고 있다와 상당부분 알고있다가 각각 68.2%와 71.9%로 많았다.

<표 4-3> 만성질환에 대한 교사의 지각여부

		전혀 모른다	조금 알고 있다	상당 부분 알고 있다	정확히 알고 있다	전체	$\chi^2(p)$
학업 성취도	상위권	9	5	2	1	17	75.019 (.000)
		52.9%	29.4%	11.8%	5.9%	100.0%	
	중위권	16	30	13	4	63	
		25.4%	47.6%	20.6%	6.3%	100.0%	
	하위권	4	8	15	5	32	
		12.5%	25.0%	46.9%	15.6%	100.0%	
전체		29	43	30	10	112	
		25.9%	38.4%	26.8%	8.9%	100.0%	

p<0.05

2. 만성질환의 유무와 교사의 기대 하위영역별 비교

(1) 지원적 행동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의 기대 하위 영역인 지원적 행동 기대에 대해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하위권이 13.14점, 중위권이 14.08점, 상위권이 16.21점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상위권이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만성질환의 유무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가 15.74점, 있는 경우가 13.42점으로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가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표 4-4> 교사의 지원적 행동 기대

		N	M	SD	t	p
학업성취도	상위권	39	16.21	4.34	11.05	.001
	중위권	124	14.08	4.51		
	하위권	37	13.14	4.22		
만성질환 유무	유	112	13.42	4.13	.497	.430
	무	88	15.74	4.06		

$p < 0.05$

(2) 부정적 피드백과 지시적 행동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의 기대 하위 영역인 부정적 피드백과 지시적 행동 기대에 대해 살펴보면 부정적 피드백과 지시적 행동은 역산항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피드백과 지시적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긍정적 교사의 기대를 하는 것을 뜻한다.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하위권이 14.02점, 중위권이 15.43점, 상위권이 15.74점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상위권이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즉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교사의 부정적인 기대를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성질환 유무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가 15.38점, 있는 경우가 14.37점으로 없는 경우가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즉 부모의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가 학생들이 교사의 부정적 기대를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 4-5> 교사의 부정적 피드백과 지시적 행동 기대

		N	M	SD	t	p
학업성취도	상위권	39	15.74	3.75	2.54	0.87
	중위권	124	15.43	3.94		
	하위권	37	14.02	3.71		
만성질환 유무	유	112	14.37	4.64	.570	.561
	무	88	15.38	3.86		

p<0.05

(3) 학업 및 규칙 강조 행동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의 기대 하위 영역인 학업 및 규칙 강조 행동 기대에 대해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하위권이 15.33점, 중위권이 16.08점, 상위권이 16.75점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상위권으로 갈수록 교사의 학업 및 규칙을 더 잘 지키리라는 기대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만성질환 유무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가 16.68점, 있는 경우가 15.42점으로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가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즉 부모가 만성질환이 없는 학생이 교사의 학업 및 규칙을 더 잘 지키리라는 기대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표 4-6> 교사의 학업 및 규칙 강조 행동 기대

		N	M	SD	t	p
학업성취도	상위권	39	16.75	2.89	1.47	.460
	중위권	124	16.08	2.78		
	하위권	37	15.33	3.31		
만성질환 유무	유	112	15.42	2.84	1.27	.281
	무	88	16.68	3.28		

p<0.05

(4) 긍정적 기대 및 관심적 행동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의 기대 하위 영역인 긍정적 기대 및 관심적 행동 기대에 대해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하위권이 12.74점, 중위권이 12.88점, 상위권이 13.79점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상위권이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부모의 만성질환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가 13.44점, 있는 경우가 11.94점으로 없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나 부모가 만성질환이 없을 때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표 4-7> 교사의 긍정적 기대 및 관심적 행동

		N	M	SD	t	p
학업성취도	상위권	39	13.79	3.77	2.98	.067
	중위권	124	12.88	3.56		
	하위권	37	12.74	4.02		
만성질환 유무	유	112	11.94	4.82	3.69	.01
	무	88	13.44	3.63		

p<0.05

(5) 전체 교사의 기대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교사의 기대에 대해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하위권이 53.28점, 중위권이 58.54점, 상위권이 62.49점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상위권이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부모의 만성질환 유무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가 58.50점, 있는 경우가 54.84점으로 없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 부모가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표 4-8> 전체 교사의 기대

		N	M	SD	t	p
학업성취도	상위권	39	62.49	12.47	5.76	.002
	중위권	124	58.54	11.36		
	하위권	37	53.28	12.60		
만성질환 유무	유	112	54.84	11.01	1.46	.421
	무	88	58.50	12.62		

$p<0.05$

제 5 절 교사의 기대와 학업성취와의 관계

1. 교사의 기대와 학업성취와의 관계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의 기대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와 교사의 기대의 하위변인 중 지원적 행동이 $r=.313(p<.01)$ 의 정비례 관계를 보여 상관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 피드백과는 $r=.146(p<.05)$, 긍정적 기대와는 $r=.178(p<.05)$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업성취도와 전체 교사의 기대와는 $r=.244(p<.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5-1> 교사의 기대와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학업성취도	지원적 행동	부정적 피드백	학업,규칙 강조	긍정적 기대	전체교사 기대
학업성취도	1					
지원적 행동	.313(**)	1				
부정적 피드백	.146(*)	.431(**)	1			
학업,규칙 강조	.110	.496(**)	.187(**)	1		
긍정적 기대	.178(*)	.697(**)	.367(**)	.532(**)	1	
전체교사기대	.244(**)	.836(**)	.682(**)	.679(**)	.841(**)	1

* $p<.05$, ** $p<.001$

2. 교사의 기대 하위영역별 학업성취 비교

(1) 지원적 행동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각된 교사의 기대 하위 영역인 지원적 행동 기대에 대해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지원적 행동이 하일수록 학업성취도가 하위권이 높게 나타나, 지원적 행동이 하인 학업성취도 하위권은 51.4%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지원적 행동이 상일수록 학업성취도가 상위권이 높게 나타나, 지원적 행동 상이 학업성취도 상위권 25.6%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즉 지각한 지원적 행동기대가 높을수록 높은 학업성취를 나타냈다.

<표 5-2> 교사의 지원적 행동 기대에 따른 학업성취

구 분		지원적행동			전체	$\chi^2(p)$
		상	중	하		
학업성취도	상위권	10	23	6	39	19.090 (.001)
		25.6%	59.0%	15.4%	100.0%	
	중위권	13	52	59	124	
		10.5%	41.9%	47.6%	100.0%	
	하위권	1	17	19	37	
		2.7%	45.9%	51.4%	100.0%	
전체		24	92	84	200	
		12.0%	46.0%	42.0%	100.0%	

$p<.05$

(2) 부정적 피드백과 지시적 행동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각된 교사의 기대 하위 영역인 부정적 피드백과 지시적 행동 기대에 대해 살펴보면, 역산항목으로 부정적 피드백이 상으로 갈수록 부정적 기대를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부정적 피드백과 지시적 행동의 상은 학업성취도 상위권 학생이 30.8%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 피드백과 지시적 행동의 하는 학업성취도 하위권 학생이 40.6%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3> 교사의 부정적 피드백과 지시적 행동 기대에 따른 학업성취

구 분		부정적 피드백				x ² (p)
		상	중	하	전체	
학업성취도	상위권	12	21	6	39	8.080 (.089)
		30.8%	53.8%	15.4%	100.0%	
	중위권	34	61	29	124	
		27.4%	49.2%	23.4%	100.0%	
	하위권	5	17	15	37	
		13.5%	45.9%	40.6%	100.0%	
전체		51	99	50	200	
		25.5%	49.5%	25.0%	100.0%	

p<0.05

(3) 학업 및 규칙 강조 행동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각된 교사의 기대 하위 영역인 학업 및 규칙 강조 행동 기대에 대해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학업 및 규칙 강조 상인 학생은 학업성취도 상위권이 35.9%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학업 및 규칙 강조 하인 학생은 학업성취도 하위권이 21.6%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4> 교사의 학업 및 규칙 강조 행동 기대에 따른 학업성취

구 분		학업규칙강조				x ² (p)
		상	중	하	전체	
학업성취도	상위권	14	23	2	39	4.960 (.291)
		35.9%	59.0%	5.1%	100.0%	
	중위권	36	72	16	124	
		29.0%	58.1%	12.9%	100.0%	
	하위권	9	20	8	37	
		24.3%	54.1%	21.6%	100.0%	
전체		59	115	26	200	
		29.5%	57.5%	13.0%	100.0%	

p<0.05

(4) 긍정적 기대 및 관심적 행동

<표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각된 교사의 기대 하위 영역인 긍정적 기대 및 관심적 행동 기대에 대해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긍정적 기대 및 관심적 행동이상은 학업성취도 상위권 학생이 20.5%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 기대와 관심적 행동이 하는 학업성취도 하위권 학생이 59.5%로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5> 교사의 긍정적 기대 및 관심적 행동 기대에 따른 학업성취

구 분		긍정적기대				x ² (p)
		상	중	하	전체	
학업성취도	상위권	8	16	15	39	7.784 (.100)
		20.5%	41.0%	38.5%	100.0%	
	중위권	11	59	54	124	
		8.9%	47.6%	43.5%	100.0%	
	하위권	4	11	22	37	
		10.8%	29.7%	59.5%	100.0%	
전체		23	86	91	200	
		11.5%	43.0%	45.5%	100.0%	

p<0.05

(5) 전체 교사의 기대

<표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각된 전체 교사의 기대에 대해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전체 교사의 기대 상은 학업성취도 상위권 학생이 23.1%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전체 교사의 기대 하는 학업성취도 하위권 학생이 37.8%로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즉 지각된 교사의 기대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났다.

<표 5-6> 전체 교사의 기대에 따른 학업성취

구 분		전체교사기대				$\chi^2(p)$
		상	중	하	전체	
학업성취도	상위권	9	26	4	39	13.418 (.009)
		23.1%	66.7%	10.2%	100.0%	
	중위권	11	84	29	124	
		8.9%	67.7%	23.4%	100.0%	
	하위권	2	21	14	37	
		5.4%	56.8%	37.8%	100.0%	
전체		22	131	47	200	
		11.0%	65.5%	23.5%	100.0%	

$p < .05$

제 4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업성취도와 상관성이 높은 가정 배경 중에서 부모의 만성 질환 여부에 따른 학업성취의 격차와, 부모의 만성 질환의 여부가 일선 교사에게 의식·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쳐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기대에 차이가 나게 하는지, 교사의 기대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만성 질환을 가진 학부모가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부모의 만성 질환 여부가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교사의 기대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헌조사와 질문지를 사용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고,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 인문계 고등학교 3 학년을 대상으로 200명을 선정하였다.

학부모의 만성 질환 여부 뿐 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함께 측정하였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계열석차로 측정하였다. 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사의 기대수준은 Weinstein and Middlestadt가 개발한 질문지를 이상숙²⁸⁾의 연구에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지원적 행동, 부정적 피드백과 지시적 행동, 학업 및 규칙 강조 행동, 긍정적 기대 및 관심적 행동 등 4가지 부분으로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신뢰도 검사, 빈도검사(Frequency Analysis),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교차분석 $\chi^2(p)$ 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p < .01$, $p < .001$ 에서 검증하였다.

28) 이상숙, “교사의 행동에 대한 학생의 차별적 지각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8).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상위권이 더 높게 나타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인 경우가 학업성취도 상위권이 31.9%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학업성취도 하위권이 더 높게 나타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인 경우가 학업성취도 하위권이 42.8%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나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p < 0.05$)

둘째, 아버지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 학업성취도 하위권이 62.2%로 유의하게 높았고,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도 하가 71.4%로 유의하게 높았다.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학업성취도의 상위권과 중위권이 비슷하게 높았으며,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도 상이 68.2%, 중이 57.0%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만성 질환이 없는 경우 학업성취도 상위권이 71.8%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도 상이 84.1%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부모의 만성질환이 고등학생의 성적에 미치는 기대에 대한 결과에서 학업 성취도 상위권에서는 전혀 아니다가 58.8%로 높았고,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는 하위권에서 34.4%로 타 집단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부모의 만성질환의 유무와 교사의 기대와의 관계에서는 교사의 차별대우 지각여부에서 상위권과 중위권은 대체로 그렇다가 43.6%, 34.7%로 높았고, 하위권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37.7%로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교사의 차별대우 지각여부는 만성질환이 있을 때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36.6%로 높게 나타났다.($p < 0.05$) 차별대우 기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부모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가정환경이 8.9%로, 없는 경우 학급의 임원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유무와 교사의 기대 하위영역별 비교에서 교사의 기대 하위 영역인 지원적 행동 기대에 대해 살펴보면 만성질환의 유무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가 15.74점, 있는 경우가 13.42점으로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가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교사의 기대 하위 영역인 부정적 피드백과 지시적 행동 기대에 대해 살펴보면 부정적 피드백과 지시적 행동은 역산항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피드백과 지시적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긍정적 교사의 기대를 하는 것을 뜻한다.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하위권이 14.02점, 중위권이 15.43점, 상위권이 15.74점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상위권이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즉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교사의 부정적인 기대를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성질환 유무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가 15.38점, 있는 경우가 14.37점으로 없는 경우가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즉 부모의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가 학생들이 교사의 부정적 기대를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사의 기대 하위 영역인 학업 및 규칙 강조 행동 기대에 대해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하위권이 15.33점, 중위권이 16.08점, 상위권이 16.75점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상위권으로 갈수록 교사의 학업 및 규칙을 더 잘 지키리라는 기대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만성질환 유무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가 16.68점, 있는 경우가 15.42점으로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가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즉 부모가 만성질환이 없는 학생이 교사의 학업 및 규칙을 더 잘 지키리라는 기대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교사의 기대 하위 영역인 긍정적 기대 및 관심적 행동 기대에 대해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하위권이 12.74점, 중위권이 12.88점, 상위권이 13.79점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상위권이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부모의 만성질환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가 13.44점, 있는 경우가 11.94점으로 없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나 부모가 만성질환이 없을 때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전체 교사의 기대에 대해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하위권이 53.28점, 중위권이 58.54점, 상위권이 62.49점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상위권이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부모의 만성질환 유무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가 58.50점, 있는 경우가 54.84점으로 없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 부모가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의 만성 질환 유무가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교사의 기대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학부모의 만성 질환의 유무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머니의 만성 질환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둘째, 학부모의 만성 질환의 유무가 교사의 기대와의 관계에서는 교사의 기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학교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가 의식 무의식적으로 학생의 부모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교사의 기대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토대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를 달리 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교사의 기대와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학업성취도와 교사의 기대의 하위 변인 중 지원적 행동의 교사의 기대가 가장 상관값이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기대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왔으며 교사가 학생에게 별다른 기대를 갖지 않았을 때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기 때문에 교육 전반에 걸쳐 일반화하기 어렵다.

첫째,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집단 요인, 학교 내, 외적인 변인들에 대해 통제가 어렵다.

둘째, 설문을 통해 학부모의 만성 질환의 유무와 교사의 기대, 학업성취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축소 또는 과장했을 수 있다.

셋째, 부모의 만성 질환을 척도화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넷째, 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만성 질환의 유무에 따른 학업성취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교사의 기대가 높게 나타났고,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교사의 기대가 낮게 나타났는데 차별적 교사의 기대를 지양하고 부모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교사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한 고등학교 3학년 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후속연구는 다양한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결하여 교사의 기대가 각 학교단계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 신혜숙. “차별적인 교사기대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2.
- 황기우.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사의 기대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6.
- 성기형. “학업성취 변인에 관한 요인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
- 김신일.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2004.
- 임용순 외. 「강원도 도시와 읍·면 지역간의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분석 및 해소방안 연구」. 강원도: 강원도 교육청 위탁연구보고서, 2004.
- 오옥환. 「교육사회학의 이해와 탐구」. 서울 : 교육과학사, 2003.
- 이종각. 「새로운 교육사회학총론」. 서울 : 동문사, 2004.
- 김병성. 「학교효과론」. 서울 : 학지사, 2001.
- 김희영. “교사의 성취기대에 대한 학생의 지각과 학업성취와의 상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 백영배. “자기 충족적 예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 이상숙. “교사의 행동에 대한 학생의 차별적 지각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8.
- 권락원. “학생이 지각한 부모 및 교사의 성취기대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2.
- 한대동.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풍토 지각 경향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1.
- 석태중.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금육학술문화재단 연구보고서, 1981.

□ 국외 문헌

- Simon, J. *How Effective is Schooling for Promoting Learning*.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1975.
- McDill, E. et al. "Institutional Effects on the Academic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Sociology of Education*. 40, 181~199, 1967.
- Rosenthal R. and Jacobson L. *Pygmalion in the classroom*.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8.
- Bloom, M. S.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New York : Mcgraw-Hill, 1976.
- Brookover, W.B. *Final Report of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1E 107, 1973.
- Fideler, Q. Cohen, R. and Feency, S. "An attempt to replicate the teacher expectancy effects." *Psychological Reports*. 29, 1223-28, 1971.
- Fleming, E. S. and Anttonen, R.G. "Teacher expectancy or my fair lady." *AERA Journal*. 8, 241, 1971.
- Duncan, O. D. Featherman, D. and Duncan, B.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achievement*. New York: Academic press, 1972.

부 록

부탁의 말씀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고등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정확한 응답은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07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연구자 : 김 정 훈

* 아래의 각 문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적절한 번호에 체크해 주시고, 괄호 안의 주관식 문항은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조사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는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V 또는 O 표시를 하시거나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 귀하의 지난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은 어떻습니까?

예) 학급 36명 일 때

- ① 상위권(20%) : 7등 이내,
- ② 중위권(21-80%) : 8-29등,
- ③ 하위권(81-100%) : 30-36등

2. 귀하의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은 어떠했습니까?

- ① 상위권(20%이내)
- ② 중위권(21-80%이내)
- ③ 하위권(81-100%)

3. 나의 중학교 학업 성적의 결정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나의 노력
- ② 나의 능력
- ③ 가정 환경
- ④ 교사의 영향
- ⑤ 운

4. 나의 고등학교 학업 성적의 결정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나의 노력
- ② 나의 능력
- ③ 가정 환경
- ④ 교사의 영향
- ⑤ 운

B. 다음은 귀하의 가정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를 보고 가로안에 알맞은 V 또는 O 표시를 하시거나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5. 부모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한 분만 계실 경우는 한 분만 표시)

아버지 () 어머니 ()

- ① 무학
- ② 초등학교 졸업
- ③ 중학교 졸업
- ④ 고등학교 졸업
- ⑤ 전문대 졸업
- ⑥ 대학교 졸업
- ⑦ 대학원 졸업 이상

6. 부모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한 분만 계실 경우는 한 분만 표시)

아버지 () 어머니 ()

- ① 40~49세
- ② 50~59세
- ③ 60~69세
- ④ 70세 이상

(7번 ~ 8번 문항 : 아래의 직업 예시 표를 보시고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단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구체적으로 직업을 적어 주십시오. 한 분만 계실 경우는 한 분만 표시)

7.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8. 어머니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직업 예시 표

①단순노무종사자 예) 행상, 가사 도우미, 경비원, 청소원, 단순노무자(임시, 일일고용), 농업, 임업, 수산, 양식업종사자, 주부, 무직, 실직자, 기타

②서비스직 종사자(피고용) 예) 판매직 점원, 식당 종업원, 보험설계사, 숙련기능공(피고용), 운전기사, 이미용사

③자영기능인 예) 개인택시 운전자, 중장비기사, 건설기술자, 생산 및 관련종사자(고용주 및 여세자영업자)

④자영상인 및 자영서비스업자 예) 가게, 음식 및 숙박업, 종업원 10인 이하의 제조/서비스/건축업, 임대업 등, 판매/서비스 종사자(자영), 농업, 수산업

⑤하위 전문직 (사무직) 예) 정부의 하급 공무원, 일반회사의 사무직사원, 초/중/고 교사, 방송언론계, 자유예술직, 종교직, 컴퓨터 전문가, 판매/서비스업 감독자, 일반 군인, 경찰관 및 보안 종사자

⑥상위 전문직 예)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판/검사, 대학교수, 박사급 연구원, 약사, 정부의 관리직 공무원, 일반회사의 고급 관리직 사원(피고용), 군인(장교), 경찰간부

⑦고위직 예) 자본가, 대기업주, 정부의 고위관리

9. 가정의 월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 ① 100만원 이하
- ② 101~200만원
- ③ 201~300만원
- ④ 301~400만원
- ⑤ 401~500만원
- ⑥ 501만원 이상

C. 다음은 귀하의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V 또는 O 표시를 해주세요

10. 귀하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질환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 어머니 ()

- ① 없다.
- ② 고혈압
- ③ 심장질환
- ④ 당뇨병
- ⑤ 소화기 질환
- ⑥ 호흡기 질환
- ⑦ 암
- ⑧ 뇌졸중 및 뇌질환
- ⑨ 기타

11. 귀하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질환의 언제 발생했습니까?

(부모님이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만 답하세요)

아버지 () 어머니 ()

- ① 초등학교 이전
- ② 초등학교 때
- ③ 중학교 때
- ④ 고등학교 때

12. 귀하는 부모님의 질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정확히 알고 있다.

13. 귀하의 부모님이 상기 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이용하십니까?

- ① 1주에 한 번 정도
- ② 2주에 한 번 정도
- ③ 3주에 한 번 정도
- ④ 1개월에 한 번 정도

14. 부모님의 만성 질환으로 인해 함께 병원이나 응급실을 내원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있다.

15. 부모님의 만성 질환이 학교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 ② 대체로 아니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6. 부모님의 만성 질환이 장래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줍니까?

- ① 전혀 아니다.
- ② 대체로 아니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D. 다음은 귀하의 학교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V 또는 O 표시를 해주세요.

17. 지금까지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고 느끼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 ② 대체로 아니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8. 선생님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차별 대우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학업 성적
- ② 가정 환경
- ③ 지능
- ④ 외모
- ⑤ 생활 태도
- ⑥ 학급의 임원

※ 부모님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 기재해 주세요.

19. 선생님들이 귀하 부모님의 만성 질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상당 부분 알고 있다.
- ④ 정확히 알고 있다.

20. 부모님의 질환으로 선생님과 상담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선생님의 기대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1~5까지 해당하는 부분에 V 또는 O 표시를 해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선생님의 질문에 내가 바른 대답을 했을 때 '맞았어요'하시며 만족스러운 느낌을 갖도록 하셨다.	5	4	3	2	1
2. 선생님은 내가 어떤 문제를 잘 풀지 못하고 있을 때 도와 주셨다.	5	4	3	2	1
3. 선생님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5	4	3	2	1
4. 선생님은 다른 학생보다 나를 특별히 잘해 주셨다.	5	4	3	2	1
5. 선생님은 질문을 하시어서 내가 대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	5	4	3	2	1
6. 선생님은 나의 흥미나 적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다.	5	4	3	2	1
7.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거나 문제를 풀지 못할 때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셨다.	5	4	3	2	1
8. 선생님은 내가 장난을 치거나 설명을 주의깊게 듣지 않는다고 꾸중하셨다.	5	4	3	2	1
9. 선생님은 어떤 문제를 풀게 하고서는 다 풀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데도 다음 설명을 진행하셨다.	5	4	3	2	1
10.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셨다.	5	4	3	2	1
11. 선생님은 설명을 하시고 나서 내가 그것을 이해했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셨다.	5	4	3	2	1
12. 선생님은 내가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셨다.	5	4	3	2	1
13. 선생님이 나한테 질문을 할 때 내가 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셨다.	5	4	3	2	1
14. 선생님은 내가 설명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다른 학생한테 나를 도와주라고 부탁하셨다.	5	4	3	2	1
15. 선생님은 내가 규칙을 잘 지켜주기를 기대하셨다.	5	4	3	2	1
16. 선생님은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셨다.	5	4	3	2	1
17. 선생님은 나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어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5	4	3	2	1
18. 선생님은 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	5	4	3	2	1
19. 선생님은 내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다.	5	4	3	2	1
20. 선생님은 내가 맡은 과제를 다 해결하면 다른 과제를 주어서 더 공부하게 하셨다.	5	4	3	2	1

국문 초록

연구배경 :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간의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학업 성취도의 격차는 개인 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집단 간에도 나타나며 남녀 간, 학교 간, 도시·농촌 지역 간, 부자와 빈자의 계층 간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격차에 대한 이해는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되어 왔으나, 부모의 질병 유무가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학부모의 만성 질환 유무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방법은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의 만성 질환 유무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서 2007년 4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광주광역시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도구는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대상자의 학업 성취도 평가, 사회·경제적 배경, 학교 내의 사회적 특성, 교사의 기대 등의 관한 항목을 자기 기입식 및 직접 면담식 설문 조사를 통해 연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연구 결과, 기존의 연구 결과처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 상위권이 더 높게 나타나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만성 질환 유무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버지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60% 이상에서 하위권을 보였다.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만성 질환이 없는 경우 학업 성취도 상위권이 70% 이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학부모의 만성 질환 유무와 교사의 기대와의 관계에서도 교사의 차별 대우 지각 여부에서 상위권과 중위권은 대체로 그렇다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하위권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학부모의 만성 질환 유무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어머니의 만성 질환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가 의식·무의식적으로 학생의 부모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교사의 기대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기타 다른 가정 환경처럼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를 달리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교육의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가정 환경을 여러 관점에서 인지하고 학부모의 질병 유무를 파악하여 학업 성취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긍정적 교사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일반사회	학 번	20058233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김정훈		한문: 金廷勳	영문: Kim, jung-hoon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무등파크맨션 101-1407				
연락처	010-9433-5830		E-MAIL: kjh2810@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만성질환 학부모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영문 : The Effect of Parents with Chronic Disease i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년 6월 일

저작자: 김 정 훈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